

# 韓國 初期靑磁의 形成과 傳播

博築窯와 土築窯를 중심으로

李 鍾 玟\*

I. 머리말

II. 가마構造의 特徵과 源流

III. 出土遺物의 樣式의 技術的 特徵과 先後關係

IV. 맺음말

## I. 머리말

한국의 초기청자는 '해무리굽완을 포함하여 이와 동반되는 여러 유형의 청자'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1</sup> 192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청자의 개시시기를 포함한 전개과정은 많은 학자들의 주목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부족으로 결론을 이끌어 내는데 많은 장애가 있었다. 다행히 1980년대부터 이루어진 가마터 발굴조사는 다양한 부분에서 초기청자의 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초자료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 海剛陶磁美術館 學藝研究室長.

<sup>1</sup> 한국청자사 연구에서 초기청자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은 1989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고려청자명품특별전>을 개최하고 발간한 도록에 실린 鄭良謨 선생의 논고에서였다(鄭良謨, 「高麗靑磁」, 『高麗靑磁名品特別展』(國立中央博物館, 1989), pp. 268-283).

최근까지 축적된 연구성과로 한국의 초기청자는 생산지역이 중서부지역과 남서부지역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었으며, 생산방식은 博築窯와 土築窯라는 서로 다른 가마구조의 형태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까지 밝혀졌다.<sup>2</sup> 그러나 아직까지도 청자의 初傳樣式과 初傳지역, 지역별 생산품의 상관관계, 그리고 해무리굽원이 중심이 되는 초기청자의 下限을 어느 시기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속한다.

이 문제와 관련한 근자의 연구성과 중에는 전축요와 토축요가 중국으로부터 각자 다른 원류의 영향을 받아 유사한 시기에 국내에 뿌리내렸다는 가능성을 비친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즉 전축요와 토축요는 개시시기로부터 한동안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sup>3</sup> 그러나 가마유적, 그리고 출토품에 대한 상호간의 비교와 분석의 결과는 양자 간에 분명한 선후관계와 더불어 한쪽은 형성단계의 모습을, 한쪽은 그것이 전파된 모습을 담고 있음을 말해준다.<sup>4</sup>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초기청자를 博築窯와 土築窯라는 두 계통으로 대비하여 여러 가지 특징을 비교함으로써, 초기청자의 형성단계와 전개(전파)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겠다. 논지를 이끌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생산유적인 초기청자가마의 특징과 원류를 알아봄으로써 청자가마의 초기 신축지가 과연 어디인가에 대한 의문을 규명해 보도록 하겠다.

2 崔健, 「韓國初期靑磁의 分類と 變遷」, 『東洋陶磁』 Vol. 22(東洋陶磁學會, 1992-1994), pp. 41-64; 同著, 「靑磁窯址의 系譜와 展開」, 『미술사연구』 제12호(미술사연구회, 1998), pp. 3-20; 同著, 「라말려초 한국 자요(磁窯)의 계열과 변천」, 『용인 서리 백자요지의 재조명』(용인시·용인문화원·용인시사편찬위원회, 2001), pp. 63-82; 李鍾玟, 「始興 芳山洞 初期靑磁 窯址 出土品을 통해 본 中部地域 博築窯의 運營時期」, 『美術史學研究』 228·229(韓國美術史學會, 2000.12·2001.3), pp. 65-98; 同著, 「發掘窯蹟을 통해 본 博築窯의 運營時期 考察」, 『용인 서리 백자요지의 재조명』(용인시·용인문화원·용인시사편찬위원회, 2001), pp. 33-61; 同著, 「南部地域 初期靑磁의 系統과 特徵」, 『미술사연구』 제16호(미술사연구회, 2002), pp. 199-227; 同著, 「韓國의 初期靑磁 研究」(弘益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2.12); 同著, 「韓半島中部地方의 初期靑磁窯」, 『日韓文化藝術交流史의 解明と 普及による 藝術文化據點形成事業 報告書』(藝術據點形成事業大阪府實行委員會, 2003), pp. 20-24; 李喜寬·崔健, 「高麗初期靑磁生産體制의 變動과 그 背景」, 『美術史學研究』 232(2001.12), pp. 21-55; 李喜寬, 「韓國 初期靑磁生産體制의 成立과 展開」, 『대외문화교류연구』((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2), pp. 31-71.

3 崔健, 앞의 논문(용인시·용인문화원·용인시사편찬위원회, 2001), p. 80; 李喜寬, 「韓國 初期靑磁에 있어서 해무리굽원 問題의 再檢討: 韓國靑磁 製作의 開始時期 問題의 解決을 위하여」, 『美術史學研究』 237(韓國美術史學會, 2003.2), p. 42.

4 결론부터 말한다면 博築窯와 土築窯는 엄밀하게 선후관계와 공반시기가 맞물려 있다. 즉 전축요의 하한과 토축요의 상한은 일정한 시기 동안 겹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맞물린 단계가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여기에서는 크게 선후관계에 있다고 표현하였다. 李鍾玟, 앞의 논문(弘益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2.12), pp. 182-197 참고.

선후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출토유물의 특징 비교에서는 생산량이 가장 많은 碗의 형식변화를 분석하여 가마 출토품들의 선후관계를 조명해 보겠다. 동반되는 청자들의 양식적 특징과 그것을 제작하기 위한 기술적인 특징을 비교하는 것도 청자의 형성단계와 전과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sup>5</sup>

## II. 가마構造의 特徵과 源流

초기청자를 이해하는데 있어 눈에 띄는 가장 큰 특징은 생산시설인 가마구조가 여러 가지라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가마구조는 크게 塼築窯와 土築窯로 구분되는데 이들 간에는 규모나 築窯材, 운영방식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으며 한반도에서 분포하는 지역도 명확하게 구분된다. 여기에서는 초기청자를 생산한 가마를 전축요와 토축요로 대분하여 그것들이 갖고 있는 특징과 원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塼築窯의 특징과 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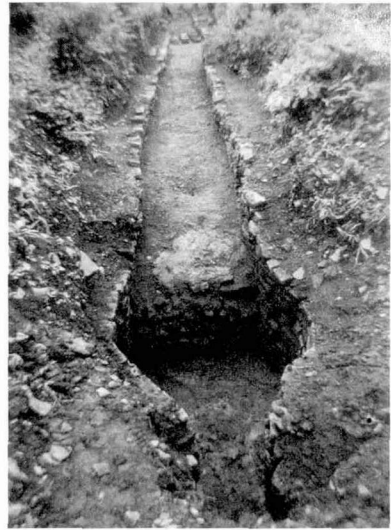
한반도의 중서부지역에서 흔히 발견되는 초기청자의 가마구조는 전축요로 대표된다. 발굴조사로 확인된 전축요는 初築段階의 총 길이가 약 40m에 이르고, 燻造室의 내벽폭이 200cm 내외이며, 측면에 약 7개 가량의 측면출입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전축요의 구조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는 1989·1990년에 조사가 이루어진 黃海道 峰泉郡 圓山里 窯址 도1와 1997·1998년에 조사된 京畿道 始興市 芳山洞 요지를 통해 가능하다 도면1의 ①.<sup>6</sup>

한반도에 이와 같은 전축요들이 형성되기 전까지 중서부지역에서 도자기를 생산했던

<sup>5</sup> 전축요와 토축요의 구체적인 편년문제는 이미 많은 논문이 소개되어 있는 관계로 이 글에서는 이와 관련한 문제를 소상하게 거론하지 않겠다.

<sup>6</sup>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봉천군 원산리 자기가마터」, 『조선유적유물도감』 12(1992), pp. 306-321; 海剛陶磁美術館·京畿道 始興市, 『芳山大窯』(2001).

가마는 길이가 10m를 채 넘지 않는 소형의 地下窟式 登窯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축요를 통한 청자생산 이전의 단계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된 도자를 사용하거나 지하굴식 등요에서 생산된 陶器를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소형의 지하굴식 등요를 운영하는 것에서 地上에 노출된 대형 전축요로 변화하는 것은 자생, 혹은 진화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기술의 직접적인 도입이 있었으며 전폭적인 기술 수용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구체적인 증거는 始興 芳山洞 발굴조사를 통해 도기를 생산한 지하굴식 등요가 입지한 곳에 전축요가 성립하고 있는 사실에서 증명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의 초기청자가마에서도 유사양상을 보인다.<sup>7</sup>



도 1 黃海道 峰峯郡 圓山里 청자요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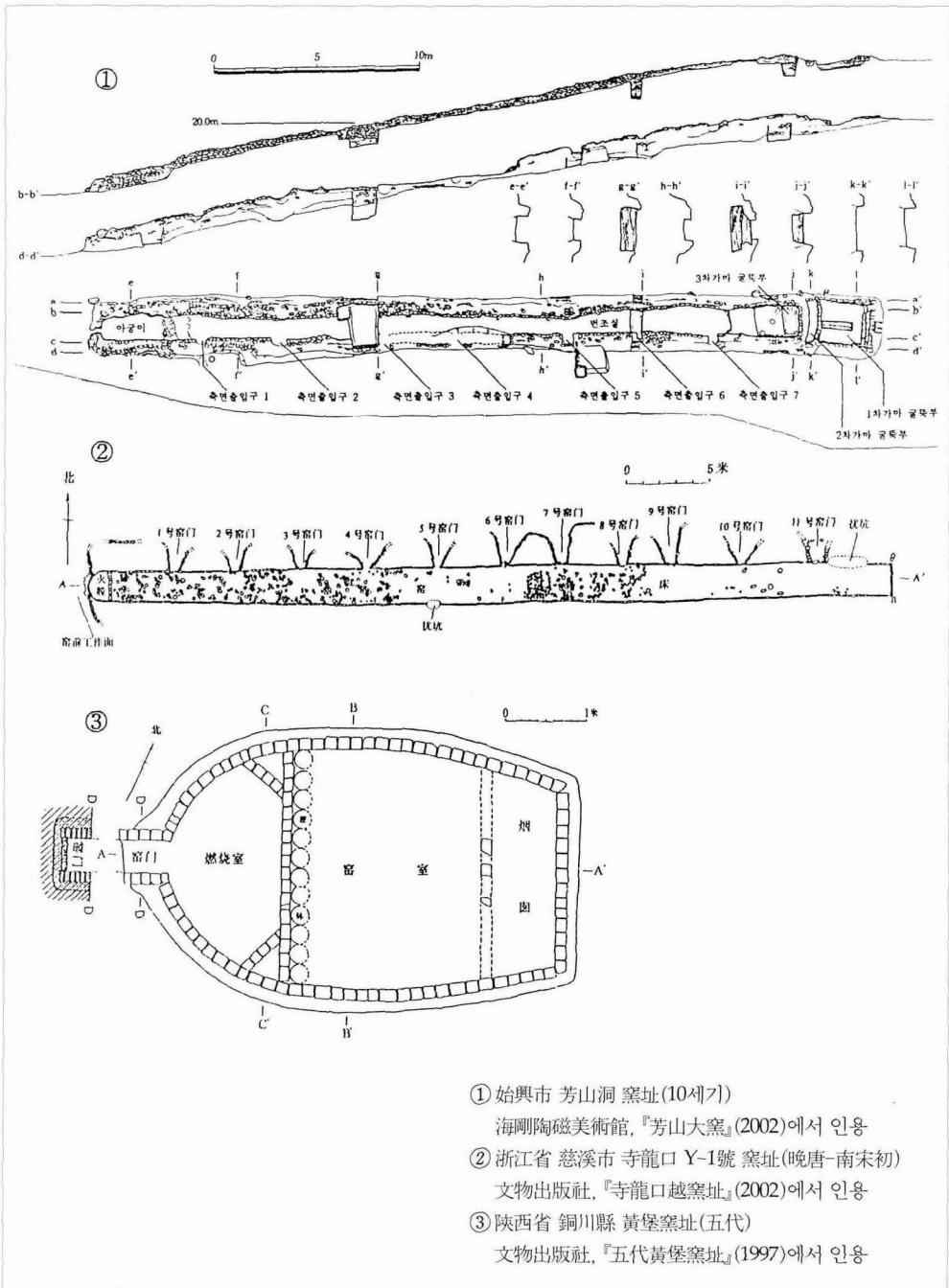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경상도 지역은 예외의 경우도 있으나<sup>8</sup> 청자가마가 집중분포하고 있는 지역, 즉 전라도나 경기도, 황해도 일원의 도기가마는 지상으로 노출된 가마가 아닌 지하굴식 등요의 구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sup>9</sup> 이 과정에는 새로운 기술, 즉 대형 전축요의 직접적인 도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특이하게도 청자가마는 도기가마가 있던 곳에 입지하여 신축한 것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청자기술의 수용이란 측면에서 볼 때 그 원류가 중국이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청

<sup>7</sup> 이와 같은 전폭적인 기술 수용의 증거는 지하굴식 登窯를 운영하던 가마 옆에 새로운 가마인 전축요가 들어선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흥 방산동 가마유적에서는 陶器層 위에 청자를 포함한 자기 계열의 폐기물층이 바로 붙어 있음으로 해서 요업의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海剛陶磁美術館·京畿道 始興市, 앞의 보고서(2001), pp. 46-55, 159-163 참고). 이와 같은 양상은 비단 시흥 방산동 유적뿐 아니라 황해도 봉천군 원산리 요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원산리에서는 1基의 陶器窯와 3基의 靑磁窯가 발견되었는데 출토품의 양상이 방산동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이러한 점들은 전축요가 도기요들이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sup>8</sup> 이상준, 「嶺南地方의 土器窯」, 『도자(陶瓷)고고학을 향하여: 제29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한국상고사학회, 2003.4), pp. 1-33의 내용 중 〈표〉 참고자료.

<sup>9</sup> 이정호, 「湖南地方의 土器窯」, 『도자(陶瓷)고고학을 향하여: 제29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한국상고사학회, 2003.4), pp. 35-49; 농업 기반공사 강진완도지부·(財)湖南文化財研究員·國立光州博物館, 『강진 삼흥지구 저수지 승상사업구역 문화유적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자료』(2002.12) 참고.



도면 1 가마구조의 평면도·입면도

자가 완성되는 唐代 이후 중국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자기들이 양산되었으며 남방에서는 龍窯로, 북방에서는 饅頭窯로 자기를 생산하였는데<sup>10</sup> 그 중에서 한국 전축요의 원형인 龍窯의 구조는 주로 남방지역 가마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越州窯를 통해 잘 알 수 있다.<sup>11</sup>

지금까지 조사로 밝혀진 越州龍窯의 구조는 唐代의 黃鱗山 Y26호 가마 2基와 上林湖畔의 出網山 荷花芯 요지, 당말-오대 교체기에 開窯하여 남송초까지 운영된 浙江省 慈溪市の 寺龍口 요지 등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sup>도면1의 ②</sup>. 이들은 약간씩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대략 총 길이 40m 내외, 측면에 7-11개의 출입구가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sup>12</sup> 이와 같은 모습은 한국의 峰泉 圓山리나 始興 芳山洞 窯址에서 확인된 가마의 구조나 규모가 월주요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알게 해준다.

이와 비교되는 또 다른 중국의 북방가마인 陝西省의 五代 黃堡窯(29호요)는 재료로 벽돌을 사용했으나 窯構의 총 길이가 불과 5m에 불과하며 너비는 약 3m 가량으로 馬蹄形을 이루고 있다<sup>도면1의 ③</sup>.<sup>13</sup> 한국 청자의 원류가 중국의 북방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면 적어도 한반도에서 동일유형의 가마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가마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한반도 중서부지역의 전축요는 구조나 규모면에서 南方의 전축요인 越州窯가 그 원류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원류를 추정할 수 있는 보조자료로서 시흥 방산동 요지에서 출토된 '奉化' 명 갑발받침을 참고할 만하다. 이 명문은 현재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地名 이외의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 奉化는 五代時期에 浙江省 東錢湖에서 활발한 요업을 벌였던 지역이다.<sup>14</sup> 명문이 지명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고향명을 표기했던 당시 중국인의 습성으로 볼 때 방산동의 장인은 중국 봉화지역 출신일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여러 지역의 발굴조사에 의해 전축요는 중국인 도공의 집단적인 도래에 의해 기술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전축요의 전래 주체는 절강성 출신의 중국인 기술자였으며 이들에 의해 전축요가 시작되었

<sup>10</sup> 한국에서는 초기청자와 관련한 가마구조의 용어를 築窯材에 따라 博築窯, 土築窯로 나누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가마가 생긴 모양을 보고 龍窯, 饅頭窯(또는 馬蹄形窯)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의 청자가마는 전축요든 토축요이든 모두 중국의 용요라는 개념의 범주 속에 들어가며 만두요로 불 만한 가마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sup>11</sup> 중국에서 龍窯의 시작은 일반적으로 商代에 浙江지역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簡明陶瓷辭典』(上海辭書出版社, 1989), p. 45; 馮先銘 主編, 『中國古陶瓷圖典』(文物出版社, 1998), pp. 378-379 참조.

<sup>12</sup> 林士民, 『青磁與越窯』(上海古籍出版社, 1999), pp. 146-151;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北京大學考古文博院·慈溪市文物管理委員會, 『寺龍口越窯址』(文物出版社, 2002), pp. 21-27.

<sup>13</sup> 陝西省考古研究所, 『五代黃堡窯址』(文物出版社, 1997), pp. 12-22.

<sup>14</sup> 林士民, 위의 책(上海古籍出版社, 1999), pp. 202-218.

던 것이다.

중서부지역 전축요에서 청자 혹은 백자를 생산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後論하겠으나 대부분의 전축요들은 일정기간 자기를 생산하다 폐요되었으며 龍仁市 西리나 驪州 中岩里와 같은 일부 지역만이 가마축요재를 토축으로 변환한 후 요업을 지속했던 흔적이 보이고 있다.<sup>15</sup> 이렇게 전축요가 소멸하거나 토축으로의 전환이 일어났던 요업구조의 변환시점은 대략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초반경으로 그 원인은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고려 정부의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sup>16</sup>

## 2. 土築窯의 특징과 원류

남서부지역의 초기청자 가마는 토축요가 중심을 이룬다. 토축요는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발굴조사된 康津 龍雲里 10-1호나 도면2의 ①<sup>17</sup> 三興里 요지의 경우를 보더라도 2<sup>18</sup> 길이는 10m를 크게 넘지 않으며 약 100-140cm의 폭을 갖고 있고, 측면출입구의 수도 2-3개소에 불과하다. 전축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를 갖고 있는 것이다.

진흙을 주재료로 활용한 이 가마는 가마축조법에 있어 전축요의 경우처럼 중국에서 원류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 현재 唐末-五代期에 운영되었던 토축요의 예는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이 도기를 생산했던 地下窟式 登窯이다. 이미 남서부지역에는 통일신라시대 이래 靈岩을 비롯한 康津, 高興, 海南 등 여러 지역에서 집단적인 도기가마가 운영되어 왔다.<sup>19</sup> 이들 도기가마는 대부분 길이가 10m를 넘지 않는 소형에 속한다. 도면2의 ②. 도기가마는 청자가마가 운집한 지역에서도 상당수가 함께 발견되고 있으며 또한

<sup>15</sup> 전축에서 토축으로 축요재를 변환하여 간 대표적인 가마는 龍仁 西리 요지와 驪州 中岩里 요지 등이 있으며 같은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추측되는 窯蹟으로서 高敞 龍溪里 요지, 漆谷 昌平里 요지가 있다. 그밖에도 전축에서 토축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일시 운영된 것으로 추측되는 소형 전축요들이 있으나 아직 연구가 미진한 상황이다.

<sup>16</sup> 전축요의 쇠퇴요인에 대하여 이것이 豪族들의 私窯이며 쇠퇴요인은 그들의 경제적 기반을 제거하면서 생긴 현상으로 해석한 견해가 있다(李喜寬·崔健, 앞의 논문(『美術史學研究』 232(2001.12), pp. 40-47). 이에 대하여 필자는 국가 주도로 요업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려는 제도정비 속에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파악하였다(李鍾玟, 앞의 논문(弘益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2.12), pp. 182-197).

<sup>17</sup> 國立中央博物館, 『康津龍雲里青磁窯址發掘調查報告書: 圖版編·本文編』(1996·1997).

<sup>18</sup> 농업기반공사 강진완도지부·(財)湖南文化財研究員·國立光州博物館, 앞의 자료집(2002.12).

청자제작이 활발했던 단계에 들어와서 도 동반 운영되고 있었다.

남서부지역에서 이와 같이 집단적인 도기가마와 청가가마가 공존하는 현상은 남서부일대의 요업상황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즉 이 지역은 중서부일대와는 달리 전통적인 陶器匠人의 영향력이 강한 곳이었다. 오랜 陶器의 전통은 청자제작의 출발시점에 있어서 생산의 주체였던 도공이 陶器系 匠人이었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해준다. 그로 인해 강진지역의 소형 토축요는 전축요처럼 중국 장인이 기술을 직접 전해준 것이 아니라 한국의 도기장인이 전통적인 소형의 지하굴식 도기가마를 변형시키면서 생긴 것이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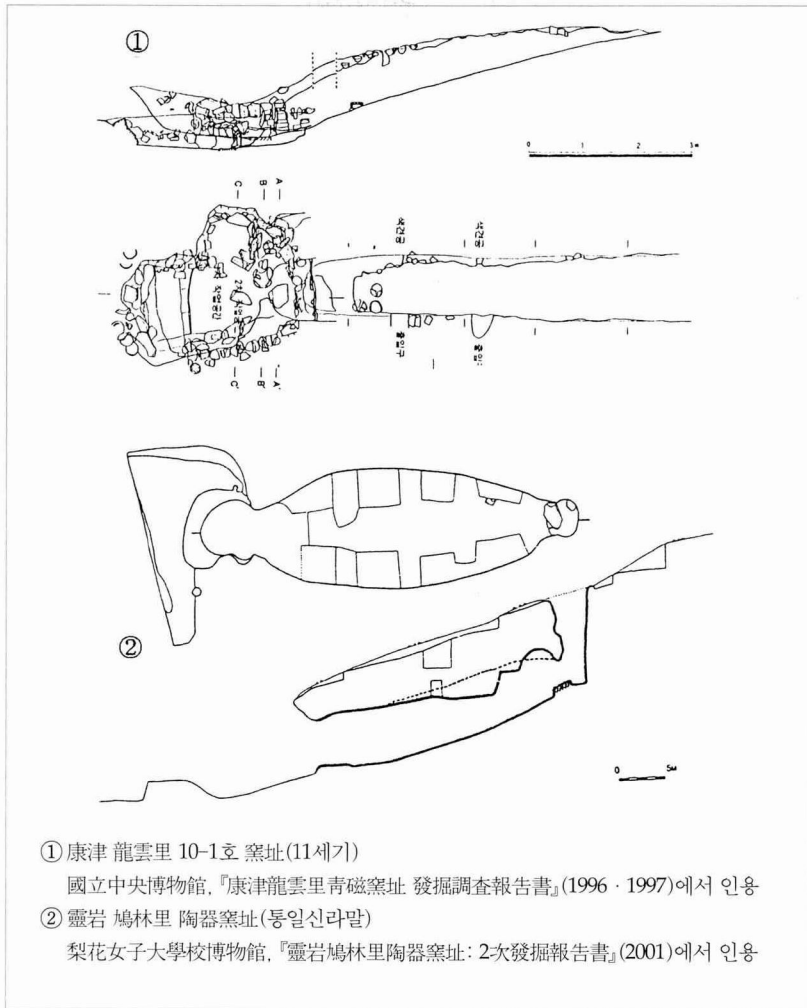


도2 康津 三興里 D地區 청자요지 전경

그러나 아궁이에서만 높은 化度를 보충하는 지하굴식 도기가마의 구조로는 청자를 생산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도기가마로는 가마 뒤쪽에 적재된 청자를 제대로 용융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가마를 지상으로 노출시켜 측면출입구를 2-3개 가량 배치하는 소형 토축요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가마의 축조에 중요한 동기를 제공했던 것은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던 전축요였다고 판단된다. 구룡지대에 지하굴형식의 등요를 설치하는 기술에 익숙한 도기장인이 갑자기 지상으로 노출된 가마를 조성하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영향이나 자극에 의해서나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토축요의 원류는 중국 기술의 직접적인 영향이 아닌 중서부지역 전축요의 기술을 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20</sup>

토축요는 도기가마의 축조방식과 전축요의 축조방식이 혼재된 가마이다. 축요재나 가마의 규모는 도기가마로부터 측면출입구를 배치하거나, 가마가 지상으로 상당부분 노출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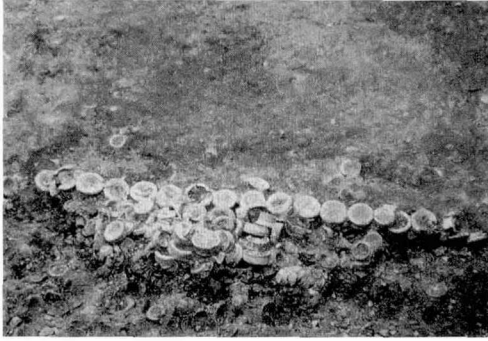
19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全羅南道 靈岩郡, 『靈岩 鳩林里 土器窯址 發掘調査: 1次發掘調査 中間報告』(1988); 同著, 『靈岩 鳩林里 陶器窯址: 2次發掘調査報告書』(2001); 韓盛旭, 「海南地域 靑瓷의 現況과 性格」, 『海南의 靑磁窯址』(해남군·목포대학교박물관, 2002), pp. 189-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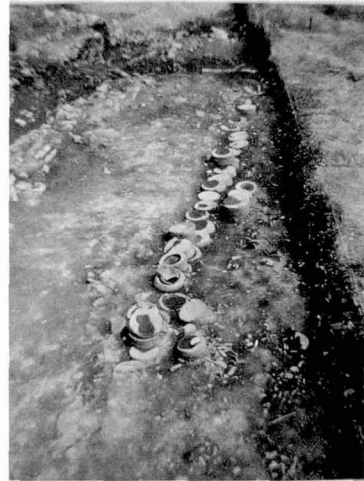
도면 2 가마구조의 평면도·입면도

어 있다는 점은 전축요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토축요의 형성과정에 전축요의 영향이 가미되어 있다는 점은 또 다른 단서를 통해 확인된다. 전축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匣鉢基壇의 존재가 그것이다.<sup>21</sup> 갑발기단은 博築으로 된 龍窯인 中國 浙江省 寺龍

<sup>20</sup> 李鍾玟, 「南部地域 初期青磁의 系統과 特徵」, 『미술사연구』 제16호(미술사연구회, 2002), pp. 199-227.



도 3 浙江省 慈溪市 寺龍口 요지 갑발기단



도 4 始興市 芳山洞 청자요지 갑발기단

口 요지의 발굴조사에서 그 존재가 확연하게 드러났으며 도3,<sup>22</sup> 같은 구조물을 始興 芳山洞 博築窯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sup>23</sup> 이러한 갑발기단은 토축요인 康津 龍雲里 10-1호 요지에서도 발견된 바 있으며,<sup>24</sup> 전축요계 토축요로 이해되고 있는 高敞 龍溪里 발굴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sup>25</sup>

이렇게 본다면 토축요는 출발점에서 전축요와 동시에 운영되거나, 혹은 다른 루트를 통해 별도의 중국 가마구조가 전해진 것이 아니라 도기 전통과 전축요라는 신기술이 결합되면서 나타난 가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토축요는 남서부지역의 도기장인이 도기가마 축조기술에 신기술인 전축요를 접목한 남서부지역의 특징적인 가마라고 하겠다.

21 匣鉢基壇은 폐기물이 가마쪽으로 흘러내려 작업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마의 좌우측에 설치하였으며 전축요에서는 꼭 발견되는 遺構의 하나이다.

22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北京大學考古文博院·慈溪市文物管理委員會, 앞의 책(文物出版社, 2002), pp. 27-31.

23 海剛陶磁美術館·京畿道 始興市, 앞의 책(2001), p. 27, 234 원색사진.

24 國立中央博物館, 앞의 책(1996·1997), p. 213, 유구도판 24.

25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高敞雅山담수沒地區發掘調查報告書』(1985), p. 225, 圖版 15의 a 참고. 고창 용계리의 가마는 토축요라고는 하나 기본 규모나 측면출입구, 전반적인 구조가 전축요를 토축으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모양의 가마는 강진 같은 곳에서 발견되는 소형 토축요와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전축요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는 유형으로 구별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남서부일대의 토축요는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는 도공의 계통이 어느 성향인가에 따라 가마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 Ⅲ. 出土遺物の樣式的 技術的 特徵과 先後關係

전축요와 토축요의 관계설정에서 가마유구의 분석과 비교를 통한 선후관계보다 더 명확하게 그 과정이 드러나는 것은 출토유물이다. 특히 이들 가마에서 출토된 유물에서는 生産器種의 특징과 성향, 제작기술상의 차이 등이 발견되는데 이 중에는 여러 가지 공통적인 특징과 차이점을 알 수 있는 요소들이 혼재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먼저 출토비율이 가장 많은 해무리굽완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고 양식적, 기술적 특징이 어떻게 연계되고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1. 層位概念에 의한 해무리굽완의 해석

초기청자 연구에서 생산품 중 碗이 갖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많은 보고서를 통해 출토양상이 보고된 것처럼 碗은 초기청자를 생산하는 가마에서는 예외없이 출현하는 기종이며 생산비율도 50%를 넘는 것이 보통이다.<sup>26</sup> 이처럼 茶碗이 초기청자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미 통일신라시대부터 자리잡기 시작한 唐代 茶文化의 수입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통일신라시대에 수입된 중국 도자의 대다수는 越州窯産 청자완이나 邢窯産, 혹은 定窯産 백자완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그밖에도 차도구 세트라 할 수 있는 注子나 항아리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청자발생 이전단계부터 수입도자의 용도는 차문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중심을 이루었던 것이다. 한국에서 백자를 포함한 청자의 출현 계기는 바로 수입도자만으로 차그릇의 사용욕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함이 많았던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차그릇의 자체 생산력을 확보하는 것이 초기청자 발생으로 이어진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생각한다.<sup>27</sup>

<sup>26</sup> 발굴조사를 통해 확보된 자편들 중에서 碗을 통계낸 수치를 살펴보면 용인 서리는 52%, 시흥 방산동 52%, 여주 중앙리 51%, 강진 용운리 10-1층이 45% 가량의 비율로 나타난다. 이것은 청자가마를 운영함에 있어 碗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음을 알게 해주는 자료가 된다.

<sup>27</sup> 李鍾玟, 앞의 논문(2002.12), pp. 2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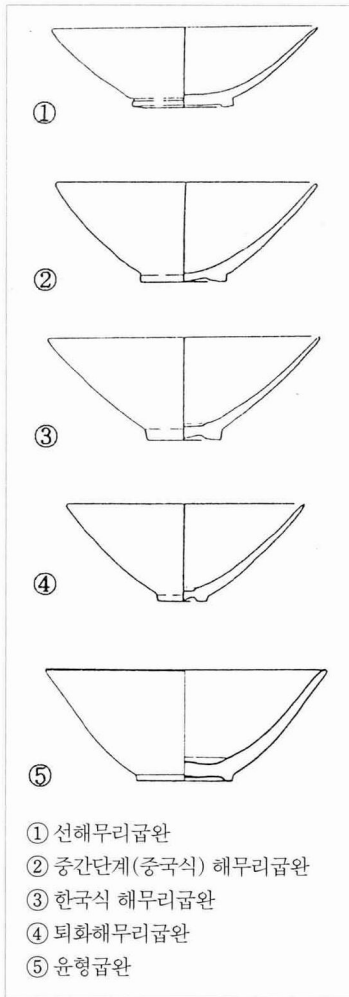
이처럼 초기청자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완은 지역에 따라, 가마에 따라 생산된 모양이 조금씩 달라 시기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완의 형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는 유적으로 1980년대에 湖巖美術館에 의해서 발굴조사된 龍仁市 西里 백자가마터는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준다.<sup>28</sup> 이 발굴조사에서는 가마구조가 塼築에서 土築으로 바뀌어 간 사실과 고려 백자의 존재, 퇴적층 유물의 형식변화가 확인되었다. 특히 4개의 자연퇴적에서 나타난 유물은 초기단계로부터 여러 단계에 이르는 광범위한 양식변화를 파악하는 기준이 되었다.<sup>29</sup> 발굴조사에서 가마구조의 변화과정과 퇴적형성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근의 연구성과는 대략 아래 두 층이 전축요 단계이고, 위의 두 층이 토축요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sup>30</sup> 이곳의 출토유물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 아래의 <표 1>이다.

표 1 용인 서리의 퇴적층별 유물의 특징

퇴적층	가마와의 관계	제작 성격	출토유물	碗의 형식 변화	기타 특징
I기층 (최하층)	전축요	청자, 백자 혼재 상태, 良質	鉢, 碗, 접시, 병 등	선해무리굽완 중심, 굽지름 5-6cm, 접지면 0.5-0.8cm, 내저곡면	
II기층	전축요	청자 감소, 백자 증가 良質 많음	鉢, 碗, 花形접시 등	선해무리굽완 중심, 일부 접지면 폭이 1cm 가까운 완 포함, 내저곡면, 혹 내저에 미세한 원각흔적	
III기층	토축요	백자 제작 상태 일부 粗質化	盒, 합뚜껑, 장고, 종자, 약연, 대발, 제기 등이 새로 출현	한국식 해무리굽완 중심, 굽지름이 줄어든 대신 접지면 폭 약간 증가, 내저원각 강함.	백자유색은 연한녹색·청색, 匣鉢 두꺼워짐
IV기층 (최상층)	토축요	백자 제작 상태 粗質化 심함	발, 완, 대접, 접시, 간, 합, 병, 뚜껑, 호, 반, 잔탁, 장고, 종자, 약연, 대발, 제기 등	완의 크기 축소, 輪形굽으로 진행	陶枕사용 대접, 접시 내면에 음각선, 철화문양 등장

28 三星美術文化財團·湖岩美術館, 『龍仁西里高麗白磁窯 發掘調査報告書 I』(1987). 최근 본 보고서가 근간될 예정으로 있다.

29 金載悅, 「高麗白磁의 發生과 編年」, 『考古美術』 177(韓國美術史學會, 1989), pp. 3-41; 同著, 「龍仁 初期 白磁窯 址發掘調査報告」, 『韓國 青磁 發生에 關한 諸問題』(韓國考古美術研究所, 1990), pp. 47-53; 同著, 「龍仁 西里 고려백자요지의 발굴조사 내용 및 의의」, 『고려시대의 용인』(학연문화사, 1998), pp. 209-236 참고.



도면 3 龍仁 西里窯址 출토  
碗의 형식(개념도)

앞의 표에서 주목되는 것은 碗의 형식변화로 그의 양상은 완의 굽과 내면에서 크게 구별된다. 굽의 변화 모습은 최하층인 I기층으로부터 IV기층으로 진행하면서 크게 선해무리굽 → 선해무리굽 · 중간단계해무리굽 · 해무리굽공존 → 해무리굽 → 퇴화해무리굽 → 윤행굽으로 바뀌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도면3. 또한 내면 바닥은 曲面에서 圓刻이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원각이 발생하는 경우 뒷단계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난히 오랜기간 운영되면서 형성된 퇴적으로 판단되는 용인 서리의 층위간 완의 모습 변화는 다른 지역의 초기청자 가마양식과 청자제작단계를 파악하는데 매우 적절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동안 강진을 위시한 남서부지역에서 발견되는 해무리굽완은 도5 중국 晚唐期の 玉璧底碗과 도6 동일양식으로 간주되어 왔다.<sup>31</sup> 옥벽저완은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중반까지 유행한 器種으로 이를 근거로 하여 한국 청자는 적어도 9세기 중반이나 후반경에는 해무리굽완을 제작한 것으로 이해하였다.<sup>32</sup> 그런데 서리 발굴에서는 그보다 선행하는 선해무리굽완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청자발생이 9세기 전반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가설이 성립되었던 것이다도면3의 ①. 이른바 張保皋 활동시기에 청자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그것이다.<sup>3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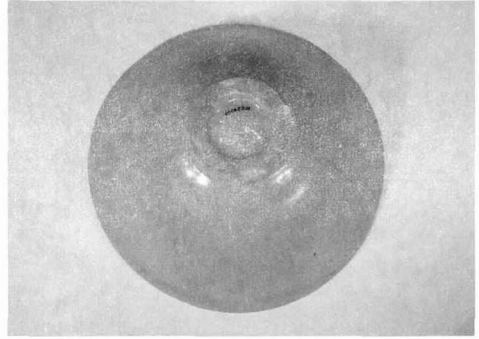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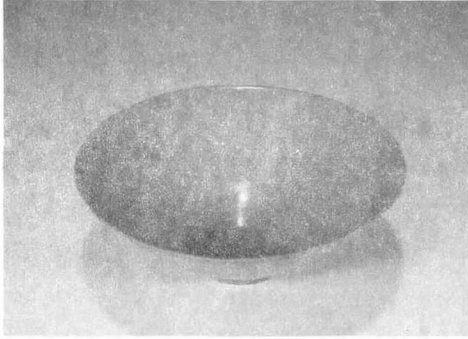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판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선해무리굽완이 과연 중국의 어느 시기 유물양식과 유사한가를

30 田勝昌, 「龍仁 西里窯址 出土遺物 檢討」, 『용인서리 고려백자요지의 재조명』(용인시 · 용인문화원 · 용인시사편찬위원회), pp. 15-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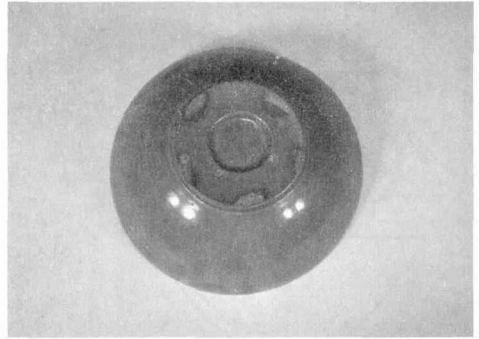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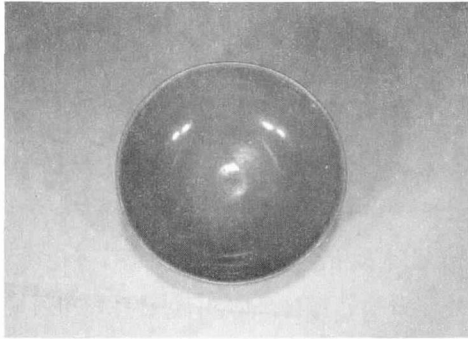
31 현재 한국청자 발생시기를 9세기로 상정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대부분 이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32 日人學者 龜井明德은 편년자료를 활용하여 중국 玉璧底碗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논문을 발표하였다(龜井明德, 「唐代玉璧高台의 出現と消滅時期의 考察」, 『貿易陶磁研究』 13(貿易陶磁學會, 1993), pp. 86-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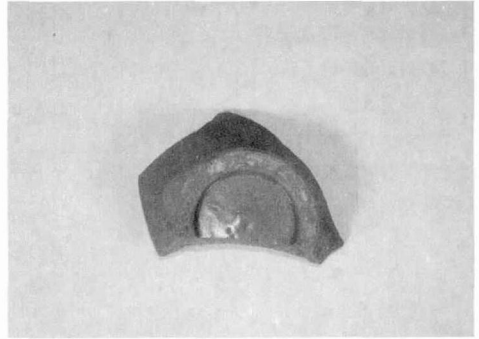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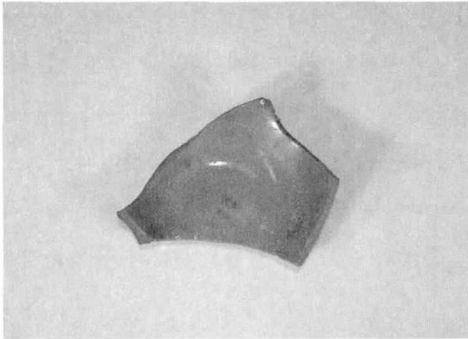
33 金載悅, 앞의 논문(1990), pp. 52-53.



도 5 靑磁해무리굽碗, 高麗 11세기, 해강도자미술관



도 6 靑磁玉環底碗, 唐 9세기 전반, 해강도자미술관



도 7 靑磁玉環底碗片, 五代 10세기, 해강도자미술관

명확히 파악하지 않은데 있다고 본다. 중국 가마를 그대로 옮긴 전축요에서 가장 이른 단계에 제작된 선해무리굽완은 중국 청자를 가장 정확하게 모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은 청자발생단계를 직접 비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제는 晚唐期 玉璧底碗 이전 단계에서 선해무리굽완과 유사한 양식을 거의 볼 수 없다는 데 있다. 선해무리굽완과의 양식적인 유사성은 五代時期에 유행한 것이 확실한 玉環底碗에서 찾아볼 수 있다<sup>도7</sup>.

이렇게 본다면 한국의 해무리굽완이 옥벽저완과 유사 양식이고, 이보다 선행하는 선해무리굽완의 제작시기는 그보다 빠를 것이라는 시각은 분명히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선해무리굽완은 중국의 玉璧底碗 이전 단계의 양식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후 단계인 玉環底碗을 받아들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sup>34</sup> 중국의 완형식 변화와 한국의 완형식 변화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알기 쉽게 구성한 것이 다음의 <표 2>이다.

표 2 중국·한국 碗의 형식변화<sup>35</sup>

시기	9세기	10세기	11세기	12세기
국가	晚唐-----	五代-----	北宋-----	
	統一新羅-----	後三國--高麗-----		
中國	-----玉璧底碗-----	-----玉環底碗-----		
韓國		-----先해무리굽완-----		
		-----중간단계완-----		
			----한국식 해무리굽완----	
			----퇴화해무리굽완----	
				----輪形굽완----

<sup>34</sup> 한국의 해무리굽완에 대한 검토 속에서 선해무리굽완을 五代의 玉環底碗으로 보는 시각은 李喜寬의 다음 논고에 잘 수록되어 있다. 필자는 이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한다(李喜寬, 앞의 논문(한국미술사학회, 2003.3), pp. 5-48). 그 동안 한국의 해무리굽완을 玉璧底碗과 동일한 유형으로 보았던 의견에는 굽의 접지면이 넓은 특징을 가진 형식상의 특징이 큰 작용을 하였다. 그러나 內底圓刻의 유무, 측사면 기울기, 그릇 전체 크기와 굽폭의 비례 등에서 볼 수 있는 차이는 중국완이 그대로 적용되었다고 보기에 많은 차이를 노출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한국의 해무리굽완은 옥벽저완의 동일유형도, 복고형식도 아닌 전혀 다른 완의 유형으로 판단하고 있다.

<sup>35</sup> 이 표는 용인 서리 요적의 퇴적층위와 국내에서 발굴조사된 각종 자료들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완의 형식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李鍾玟, 앞의 논문(2002.12), pp. 115-119, 162-166을 참고할 것.

## 2. 樣式的 特徵

전축요는 越州窯의 기술이 그대로 전해진 가마이다. 가마의 구조는 물론 생산품 역시 월주요 제품을 그대로 모방한 관계로 양자 간에는 구분이 가지 않을 만큼 유사성이 많다. 이에 비해 토축요는 가마구조에서 전축요적인 요소와 陶器가마의 요소가 결합하였듯이 출토 유물도 전축요 계통의 유물과 함께 도기적인 요소가 뒤섞여 있다. 토축요에서 보이는 이러한 현상은 초기 기술 이전과 함께 중국 도자의 모방에 충실하던 전축요 운영시기와는 달리 점차 한국적인 요소가 강해지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제작자의 성향도 전축요가 중국 도공의 주도로 제품을 생산했다면 토축요의 경우는 한국 도공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제작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

이제 몇 가지 유형의 비교 가능한 요소들을 구분하여 전축요와 토축요의 양식적 특징과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碗의 비교: 앞에서 살펴본 완의 경우 전축요에서는 선해무리굽완과 함께 내저가 곡면이고 굽접지면이 약간 넓어진 중간단계의 형식을 보이는 해무리굽완이 중심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sup>36</sup> 이러한 모습은 용인 서리의 초기 단계와 봉천 원산리, 시흥 방산동, 여주 중앙리와 같이 전축요에서 예외없이 확인되고 있다. 전형적인 전축요에서 내저원각이 있는 한국식 해무리굽완이 도5, 도면3의 ③ 발견되는 예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한국식 해무리굽완은 전축요와 무관한 기형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토축요에서는 가장 이른 양식을 보이는 장흥 풍길리, 강진 용운리 63호와 같은 지극히 일부의 가마를 제외하고 대다수는 한국식 해무리굽완이 중심을 이루거나 퇴화해무리굽완이 나타난다.<sup>37</sup> 특히 토축요의 대표적 예인 강진 용운리 9호나 10-1호의 하층, 강진 삼

<sup>36</sup> 중간단계의 형식을 보이는 완에 대하여 중국식 해무리굽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견해도 있다. 구체적인 특징은 내저면이 편평하며 굽지름이 넓고 접지면도 선해무리굽보다는 한국식 해무리굽에 가까운 유형을 말한다. 이러한 형식의 완은 전축요에서 늦은 단계인 상층부 퇴적을 중심으로 집중 발견되고 있다. 海剛陶磁美術館·京畿道始興市, 앞의 책(2001), pp. 65-66, 80-89, 97-99 참고.

<sup>37</sup> 남서부지역의 토축요에서 장흥 풍길리 요지나 강진 용운리 63호의 경우는 여러 가지 유형의 완들이 혼재하고 있으나 전축요에서 볼 수 있는 선해무리굽, 혹은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해무리굽완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가장 이른 형식의 완을 제작한 가마로 알려져 있다. 國立光州博物館, 『全南地方陶窯址調查報告(IV)』(1995), pp.

홍리 요지, 고창 용계리 가마에서는 한국식 해무리굽완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발굴지역 이외의 여러 초기청자가마터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결국 용인 서리 조사를 통해 알려진 형식변화를 기준으로 놓고 각 지역에서 발견되는 완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전축요의 생산단계는 토축요보다 적어도 일정기간 빠르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

② 동반유물: 전축요의 가마구조는 물론 생산품에서도 월주요 제품을 그대로 모방하였기 때문에 양자 간에는 구분이 가지 않으리만큼 유사성이 많다. 월주요 출토품과 유사성을 갖는 기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몇 가지 器種의 비교를 통해 동질성을 확인해 보기로 한다. 대상은 발굴조사로 성격이 규명된 始興市 芳山洞 출토품과 浙江省 慈溪市 寺龍口窯址의 오대-북송 초기층에 해당하는 10세기대의 유물을 활용하기로 한다.

전축요 출토품 중 시흥 방산동에서 수습된 유형 중에는 접시형의 그릇 위에 종이컵을 올려놓은 듯한 형태의 蓋托이 있다 도면4의 ①. 다른 지역의 발굴조사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예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방산동에서는 수 점의 제작예가 알려져 있다. 같은 모양의 청자잔탁은 寺龍口窯에서 출토된 오대-북송층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도면4의 ②, 특히 잔받침부를 따로 만들어 접시형의 그릇에 붙인 제작방식은 같은 기술이 사용되었음을 알게 해준다.<sup>3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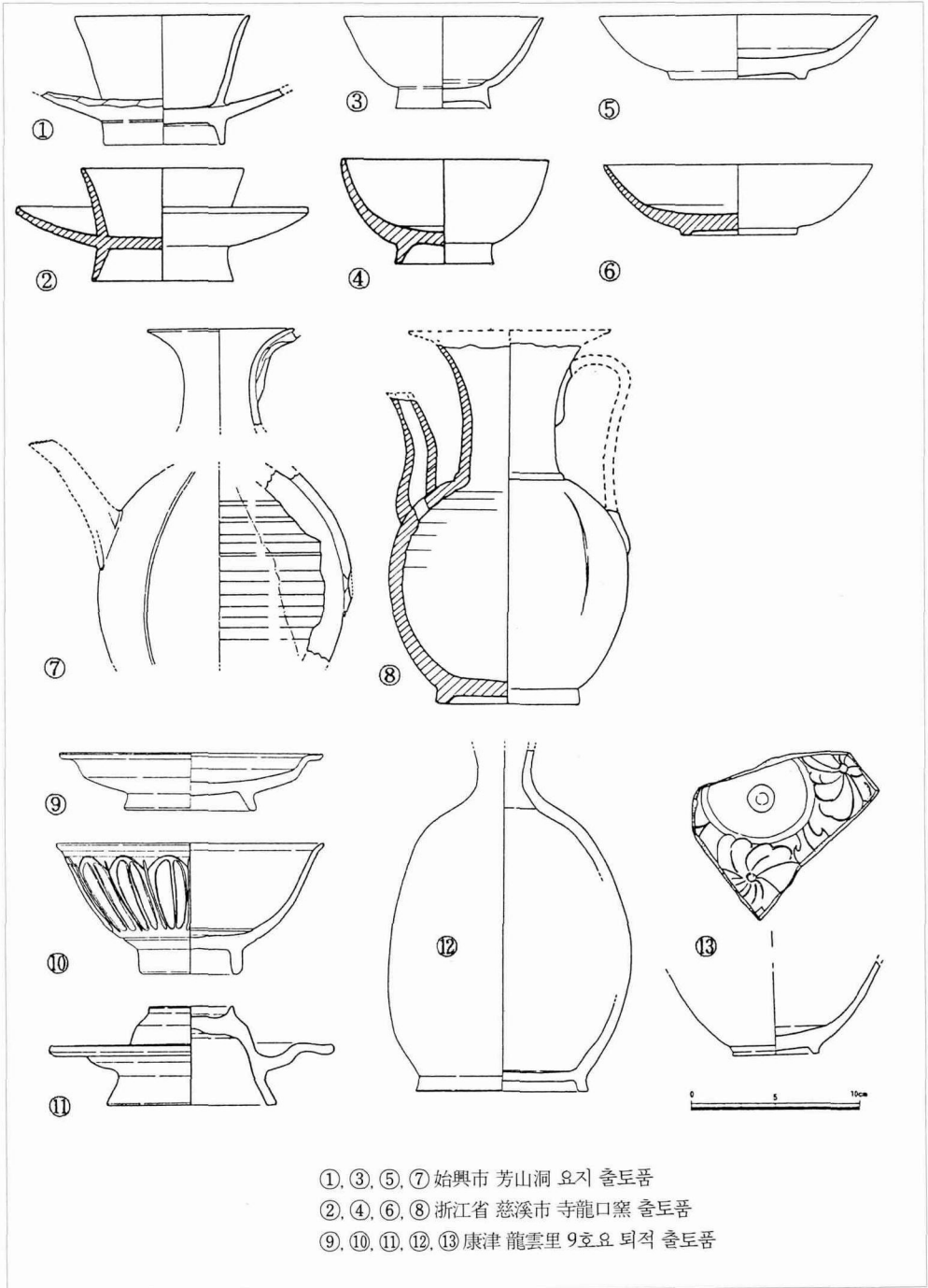
중국에서 흔히 畚이라고 부르는 잔의 형식도 양자 간의 유사성을 찾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그릇의 하나이다. 이 잔은 측사면이 벌어지고 굽이 높은 것이 특징인데 시흥 방산동 유적에서는 청자와 백자로 제작된 예가 함께 알려져 있으며 도면4의 ③, 똑같은 모양의 잔을 사룡구 요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도면4의 ④.

보통 盤이라 불리우는 접시의 유형도 양식적 유사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예가 된다. 이 기종은 측사면이 완만하게 내만하면서 오므라들고 내면 바닥이 편평하며 바닥과 측사면 사이에 원각선이 한 줄 돌아간 특징을 보여준다. 시흥 방산동과 자계시 사룡구 요지에서는 전혀 차이를 느낄 수 없는 유물들이 함께 수습되고 있어 이 접시 역시 중국 자기의 영향을 직접 받은 구체적인 예로 파악할 수 있겠다 도면4의 ⑤, ⑥.

한국의 전형적인 전축요 출토품 중에서 월주요의 형식을 가장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은 注子일 것이다. 주자는 완과 함께 세트가 되어 차를 마시는데 꼭 필요한 飲茶用 도구로서 전

110-112, 136-137; 海剛陶磁美術館·全羅南道 康津郡, 『康津의 靑磁窯址』(1992).

<sup>38</sup>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北京大學考古文博院·慈溪市文物管理委員會, 앞의 책(文物出版社, 2002), pp. 168-170.



도면 4 한국·중국의 요지 출토 유물

형적인 전축요 단계에서는 꼭 등장하는 器種에 해당한다.<sup>39</sup> 시흥 방산동에서 수습된 주자의 형식은 入水口의 구연이 나팔처럼 벌어진 계통과 구연이 직립하고 뚜껑을 씌우는 계통이 함께 확인되고 있다도면4의 ⑦. 방산동에서는 소량이나마 백자가 동반 생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주자는 청자, 백자의 예가 모두 보인다. 똑같은 모양을 보이는 주자의 형태는 사용구 요지 출토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월주요와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도면4의 ⑧.

이밖에도 전축요와 중국 월주요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는 기종들은 무수히 많다. 그런데 모든 기종이 중국의 청자를 그대로 답습한 것은 아니어서 때로는 월주요와 한국 전축요와의 차이를 느끼게 해주는 파생 器皿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아마도 중국 도공을 데려와 청자를 생산했던 초기단계부터 상존했던 현상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월주요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는 단계에서조차 새롭게 파생한 기종들이 발견되는 것은 아마도 양국 간에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전축요 생산품의 경우 전체적인 분위기가 월주요 청자를 가능한 모방하려했다는 느낌과는 다르게 토축요에서 생산된 기명들은 성격이 다르게 나타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토축요에서도 완의 생산비율은 50%를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내저원각이 있고 굽의 접지면 폭이 약간 넓어진 한국식 해무리굽완이다도5. 도면3의 ③.

특히 康津 龍雲里 9호, 10-1층과 같은 지역의 토축요 생산품에서 볼 수 있는 기종 중에는 전축요에서는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기종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서 전접시나도면4의 ⑨ 환조연판문완은도면4의 ⑩ 금속기적인 요소가 청자에 영향을 주어 생산된 유형에 해당하며, 잔대가 높은 청자잔탁은 전축요의 후기층에서나 약간 보이는 계통에 속한다도면4의 ⑪. 도기의 영향 속에서 나타나는 기종도 있는데 광구편병이 그러한 예에 속할 것이다도면4의 ⑫. 도기적인 요소의 결합은 생산자가 陶器系 陶工 출신이었을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sup>40</sup> 이상의 예들은 중국 월주요의 유물 중에서 비교대상을 찾아보아도 유사한 예가 발견되지 않는 조형들이다. 토축요의 이러한 요소들이 월주요로부터 영향을 직접 받았다고 보기

<sup>39</sup> 한국 전축요의 초기단계는 중국 용요의 형식과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전축요 운영단계 후반에 이르면 규모가 작아지고 토축요로 전환하는 경우도 생긴다. 여기에서 지칭하는 '전형적인 전축요'는 중국의 영향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단계를 지칭한다. 필자는 이와 관련한 연구에서 한국의 초기청자 유형을 3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전형적인 전축요의 운영시기는 그 중 1기에 해당하는 900-950년경 사이로 비정하였다. 李鍾玟, 앞의 논문(2002.12), pp. 183-188.

어려운 요소가 된다.

한편 무문이 중심을 이루던 전축요 단계와는 달리 토축요에서는 문양있는 청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丸彫蓮瓣文, 陰刻菊唐草文 등의 문양은 한국 청자에서 비교적 가장 이른 시기의 문양 계통에 해당하는데 완이나 접시의 내부, 잔이나 향완의 외부 등 특정한 일부 기종에만 시도되는 것을 볼 수 있다(도면4의 ⑬). 중국 월주요의 경우를 보면 오대 후반부에서 북송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문양의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 시기의 월주요 청자 문양소재는 한국의 남서부지역 초기청자에 나타나는 문양 소재와 별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음각국당초문과 같이 세밀한 음각을 시도하는 방식은 오대 후반부터 북송초 사이에 器面의 내부에 劃畫했던 문양 시문방식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어 당시의 중국 도자 분위기를 흉내내려 한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상 완을 비롯한 동반출토품들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초기청자는 중국적인 기형의 모방에 충실했던 전축요 단계 이후 한국적인 요소가 확대되는 단계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축요에서는 고급, 저급의 구분 없이 모든 청자들이 갑발 안에 넣어져 생산되고 있었으나 토축요에서는 가마나 혹은 제작지역에 따라 고급청자와 저급청자를 구분 생산하고 있는 점도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흐르면서 品質의 分化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으로 시기적인 先後의 차이를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sup>41</sup>

### 3. 技術的特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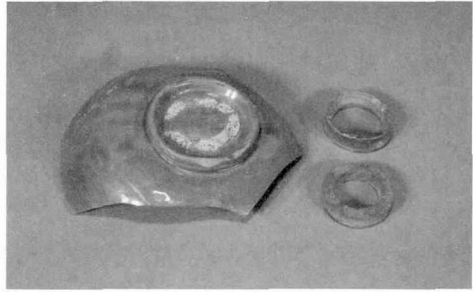
전축요와 토축요 출토의 유물 중에는 기술적 차이 속에서 선후관계의 파악이 가능한 몇 가지의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로 전축요에서만 발견되는 墊圈(고리형받침)의 존재 여부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도8). 점권이란 고급자기를 구울 때 굽 안쪽에 받쳐주는 작은 도구로 중국 유물 중에는 이미 唐代에 점토를 말아 접어서 사용한 시원적인 예가 알려져 있다.<sup>42</sup> 그러나 물레로 뽑은 대롱형 점토의 측면을 좁게 절개하여 사용한 예는 939년 편

<sup>40</sup> 李鍾政, 앞의 논문(미술사연구회, 2002), pp. 199-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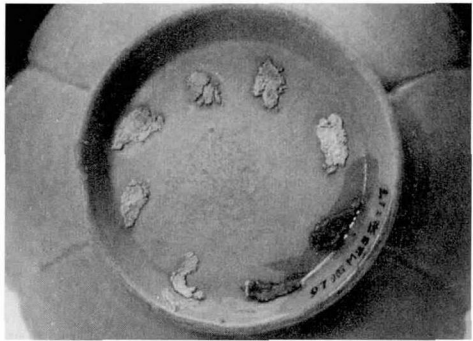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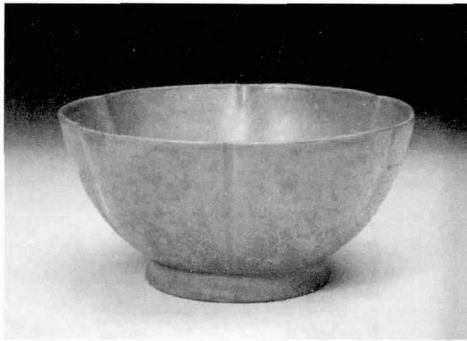
<sup>41</sup> 註40과 같음.

<sup>42</sup> 江西省歷史博物館·豐城縣文化陳列室, 「江西豐城羅湖窯發掘簡報」, 『中國古代窯址調查發掘報告集』(文物出版社, 1984), pp. 73-93.

도 8 墊圈의 사용 예, 始興市 芳山洞 청자요지 출토, 해강도자미술관



도 9 靑磁花形碗, 五代 939년(天福 4), 臨安市文物管理委員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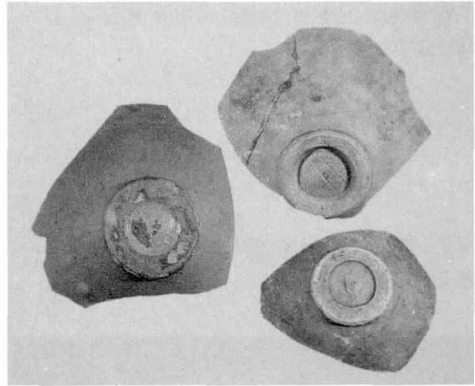
년의 馬氏王后 康陵에서 출토된 청자의 예가 가장 이른 자료이며 도9, 978년 太平戊寅銘청자과편에도 증거가 남아 있다. 즉 중국의 경우 본격적인 점권은 五代시기인 10세기부터 사용한 것이 확실하며 北宋시기로 가면 더 확대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 도구는 중서부지역 전축요에서 많이 확인되고 있으나 남서부지역 토축요에서는 아직까지 발견된 예가 없다. 토축요에서의 점권의 부재는 계통이 다른 중국 기술의 수용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전축요 이후 중국기술이 한국화되는 과정에서 사라진 것이었다.

또 하나는 초벌기술의 유무를 통해 상대적 선후관계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전축요에서는 수많은 폐기물 속에서 초벌편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康津 龍雲里 9호나 三興里, 海南 新德里와 같은 남서부지역의 토축요에서는 초벌편이 발견되고 있다<sup>도10</sup>. 재벌 이전에 초벌을 하는 기술은 이미 중국 唐代 三彩제작시에 활용된 방법이었지만 唐-五代 사이에 磁器제작에서 초벌방법이 일반화된 구체적 증거는 없다. 초벌기술이 중국에서 이용되고 확대된 것은 北宋시기에 일부 가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43</sup> 청자제작에 있어서 가마축조, 가마운영, 그릇의 형태, 施釉法 등 거의 모든 요소들이 중국에서 온 것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토축요의 초벌기술 역시 후대에 확립된 중국의 제작기술이 다른 과정을 통하여 전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식적 비교를 통한 선후관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窯道具의 변화이다.<sup>44</sup> 대부분 전축요단계에서 발견되는 갑발들은 종류가 다양하고 두께가 얇은 반면 토축요의 갑발들은 종류가 단순하고 크기가 작으며 두껍다. 또한 전축요의 갑발에는 아무런 표식이 없는 반면 토축요의 갑발에는 각종 記號나 通氣孔을 뚫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식적 변화는 용인 서리의 퇴적층은 물론 발굴조사와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어 器形의 모양뿐 아니라 번조도구에 있어서도 양식적인 차이가 확인되는 것을 알 수 있다.

晚唐-南宋期까지 운용된 浙江省 慈溪市 寺龍口 요지의 조사결과 五代까지는 한 개의 匣鉢 안에 완, 발과 같은 그릇을 몇 개씩 포개 구운 흔적들이 발견되었고 北宋 층위부터는 1갑발에 1개의 기물을 넣는 방법이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었다.<sup>45</sup> 한국의 전축요는 1갑발에 최소 2개 이상 여러 개의 기물을 넣어 번조하지만 토축요를 운영한 강진에서의 갑발 안에는 완을 1개씩 넣은 예가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다도면5. 요도구를 통해 알 수 있



도 10 青磁초벌편, 康津 龍雲里 9호 요지 퇴적 출토



도면 5 한국 초기청자의 匣鉢 재임법

<sup>43</sup> 한국 청자의 초벌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초벌기술의 원류를 唐-五代의 黃堡窯로 추정한 논문이 있다. 李喜寬, 「高麗 翡色青磁의 出現과 초벌구이(素燒)」, 『對外交渉으로 본 高麗青磁』(강진청자자료박물관, 2003), pp. 16-42.

<sup>44</sup>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것. 張起熏, 「窯道具를 통해 본 初期青磁 窯業의 變遷」, 『미술사연구』 제 16호(미술사연구회, 2002), pp. 229-254.

<sup>45</sup>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北京大學考古文博院·慈溪市文物管理委員會, 앞의 책(文物出版社, 2002), pp. 416-417.

는 이러한 적재법의 차이는 전축요와 토축요가 동일한 시기에 고르게 진행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 IV. 맺음말

한국 초기청자의 생산을 담당한 전축요와 토축요는 중심권이 각각 구분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살펴본 결과 시기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았다.

이미 전축요의 분포상황이나 중심권이 고려의 수도였던 開城 주변에 집중되어 있는 사실은 대도시로서의 기능과 많은 소비층이 형성될 수 있었던 後三國이나 高麗初가 되어서야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가마의 구조나 출토유물의 양식적, 기술적 특징에서 나타난 차이점은 적어도 한반도 초기청자의 형성이 전축요를 중심으로 중서부지역에서 이루어졌다는 확신을 준다. 양식적, 기술적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단서들을 통하여 토축요는 전축요에서 요업이 일정기간 진행된 후 다음 단계에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결국 한국의 초기청자는 처음에 중서부일대에 중국 장인을 데려와 전축요를 만들어 중국식의 청자를 생산하던 과정에서, 점차 생산지역과 주체가 남서부지역의 한국 도공들로 바뀌면서 고려의 현실에 맞는 器皿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갔다고 할 수 있다. 출발점은 중국의 五代와 시기적 관련이 있는 고려초에 중서부지역으로부터 시작하였고 이후 다른 지역으로 확산, 전파되어가는 과정에서 토축요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의 초기청자 역사에서 전축요는 개시 및 형성단계의 모습을, 토축요는 전파 및 전개과정의 모습을 담고 있다.

\* 주제어(key words): 한국의 초기청자(韓國의 初期靑磁, early celadons of Korea), 전축요(塼築窯, brick kilns), 토축요(土築窯, mud kilns), 선해무리굽(proto-pi-shaped foot ring), 해무리굽(pi-shaped foot ring)

## The Formation and Expansion of Early Korean Celadons

Yi Jong-min

'The celadon tea bowl and other shapes displaying the pi-shaped foot ring' characterize the early celadons of Korea. Despite of the many obstacles due to the lack of materials in the study of celadons, particularly the birth of celadons, newly acquired materials provide evidence that the development of celadons differed in the mid-western region and the southwestern region.

The early celadon kilns of the mid-western region comprised as brick kilns, approximately 40 meters long and 2 meters wide, with 7 side entrances. Recent excavation of the late Tang and Northern Song period in China including the Shanglin Lake (上林湖), Hehuaxin (荷花芯), Cixi City (慈溪市), and Silongkou (寺龍口) area, all imply that the Korean brick kiln originated from the Yuezhou kiln (越州窯) in the Zhejiang province (浙江省). Moreover, the saggar shard with the inscription 'bonghwa (奉化)', unearthed at the Pangsán-dong kiln site in Sihung, suggest that the potter may have come from the Fuhua (奉化) region in China.

The kilns in the southwestern region display smaller mud kilns, approximately 10 meters long, with 2-3 side entrances. Traditionally there were many small underground stoneware kilns in this region, actively maintained by the potters since the Unified Silla period. These mud kilns were not influenced by Chinese technology but were indigenously developed by the Korean stoneware potters.

In the 1980s, the excavation of the Sō-ri kiln in Yongin revealed not only a kiln

structure that transformed from a brick kiln to a mud kiln but also a stratum of waste that clearly exhibited the transition. Among the excavated materials, the tea bowls, which comprised the largest number, are particularly interesting as the foot displays the development from proto-pi-shaped foot ring → the coexistence of the proto-pi-shaped foot ring and the pi-shaped foot ring → pi-shaped foot ring → wheel-shaped foot ring. Because more than 50% of the shards from the early celadon kiln site consist of tea bowls, the study of this form provides an important criterion in the understanding of the development of early celadon kilns.

The Korean tea bowls with pi-shaped foot ring were thought to present the same style as those from the late Tang period. However, the tea bowls with proto-pi-shaped foot ring exhibit the same style with those from the Five Dynasties period. Thus, the former view must be revised. In other words, the Korean tea bowls with pi-shaped foot ring appears to be a Koreanized style of the later period, and not the contemporary style of the late Tang period.

The brick kiln structure presented objects that were exact copies of the Yuezhou wares of the Five Dynasties period, while the mud kilns showed stoneware influences and many shards displayed brick kiln characteristics and stoneware elements. Chronologically later than the brick kiln, the mud kiln produced objects influenced by metalwork, fired high quality and low quality wares separately, and attempted biscuit firing.

It appears that the brick kilns, which produced celadons for the upper class in the 10th century, directly adopted Chinese technology in the production structure of early celadons. Moreover, the mud kilns seem to have been formed around the southwestern coast as Korean celadon production structures in the 11th century. Thus, Korean celadons first began production from brick kilns and gradually transferred to the mud kilns in the southwestern area.

The early celadons of Korea were produced in brick kilns in order to satisfy the demand for celadons that were imported from China in limited amounts. The mud kilns, on the other hand, developed after celadon production was set on track, and thus reflected Koryo life style and aesthetics. This fundamental characteristic differentiates the brick kiln and the mud kiln in early celadon production.